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SOL은 호송의 소나무를 의미합니다.

제 4호 2012년 2학기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C O N T E N T S

03 제 1회 졸업식



04 이현주 보건대학 학장 취임
오향순 간호학과장 취임 인터뷰

05 동창회 발대식, 인사말

06 간호학과 수상소식



- 김호수, 손지하 ACE 대상
- 김보미 자랑스런 우송인상
- 우송대 토익경시대회 입상

07 간호학과 행사



10 특강소식



12 졸업생 학부모 대표 축사
• 재학생 송사, 졸업생 답사

15 호주 영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동계 해외연수



16 3학년 실습
SSAT

17 동아리
• 절주동아리 수상
• 독서동아리 개설
• James' drama club

18 연수 후기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오카야마현립대 교환학생 수기

22 미국 Fairmont Univ 복수학위 과정 수기



23 우리들의 이야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
SOL-Nursing Times

편집장 김시은
발행처 우송대 간호학과 편집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사무실
☎ 042-630-9290
우송대 서캠퍼스 보건의료과학관 3층

* 1년에 2번 발행됩니다.



우송대 간호학과 제 1기 졸업생 배출하다!

2013년 2월 22일 오전 11시부터 우송예술회관에서 학위수여식(이하 졸업식)이 진행되었다. 우송대 간호학과는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해 더욱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다. 이 날 졸업하는 간호학과 졸업생 전원은 서울대학병원(분당서울대병원 포함),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 국내의 우수한 병원에 취직하는데 성공하였으며, 올 초에 실시된 국가고시에도 전원이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간호학과 교수진 및 졸업생 전원이 단상에 올라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으며 간호학과 김호수, 손지하가 총장상을 수상하는 등 4년간의 노력을 되짚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 박소희 기자



이현주 교수, 보건복지대학 학장 취임



4년간 우송대 간호학과의 학과장으로써 과를 이끌었던 이현주 교수가 2013년부터는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 학장으로 취임한다. 이현주 교수는 미국 간호사 자격증 동시 취득이라는 학과의 비전을 제시하며 영어 집중 커리큘럼과 제 2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중 택일) 수강, 야간자율학습, 전원 기숙사 생활 등 우송대 간호학과만의 차별화 된 교육 환경으로 간호학과 신설 당시부터 현재까지 과의 발전을 위해 힘썼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외국 대학 간호학과와의 유학 프로그램 체결 등을 통해 글로벌 간호 리더를 양성하는데 앞장섰다. 올해부터는 간호학과를 포함한 보건의료경영학과, 작업치료학과 등 보건복지대학을 이끌게 되어 보건복지대학의 발전이 더욱 기대되는 바이다.

>> 엄영지 기자



오향순 교수, 간호학과 학과장 취임

오향순 교수가 2013년부터 이현주 교수의 뒤를 이어 간호학과 학과장으로 취임한다. 오향순 교수는 서울대병원 감염관리팀장과 대한감염관리 간호사회 회장직을 지낸 바 있으며 감염관리에 대한 연구 논문이 국제 저널에 실리는 등 감염관리의 대가이다. 앞으로 오향순 교수를 필두로 한 새로운 우송대 간호학과 발전된 모습을 기대해본다. 아래는 오향순 간호학과장과 나눈 인터뷰 내용이다.

Q. 2013년부터 새롭게 우송대 간호학과 학과장이 되셨는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우선 책임감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지난 4년간 신설학과인 간호학과를 영어 특성화 교육의 성취, 글로벌 간호인으로서의 역량 강화, 서울의 우수한 big five병원을 포함한 대학병원에 전원 취업 합격, 100%국시 합격 등 우송대학의 선도학과로 자리매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주시하는 간호학과로 성장시킨 초대 학과장인 이현주 학장님과, 모든 교수님들의 노력에 무한한 찬사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나타내준 우리 1회 졸업생들에게 격려의 찬사를 보내며, 후배 재학생들의 역량개발과 학과 발전에 주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Q. 앞으로 신입생, 편입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학과 운영방침에 변화가 있나요?

학생들이 젊음을 열정적으로 자기개발에 사용하고 그래서 또한 행복한 학과로 만들고자 합니다. 우송대 간호학과 특성화 교육인 자율학습, 영어 집중교육을 학생들의 자기주도 훈련, 책임감과 자율성 훈련을 위해서 학생들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학생들의 역량 개발에 주력할 것입니다. 학교와 학과의 규칙과 질서를 준수하는 학생들은 철저하게 보호하며, 또한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최상의 혜택과 유익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정식 교과목 외에 숨어있는 커리큘럼(hidden curriculum)을 잘 개발하여 학생들의 역량강화 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행복하고 평안을 느끼며 생활하는 간호학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Q. 앞으로 우리 과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주는 학과, 이웃과 잘 어울리고 봉사할 수 있는 학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Q. 마지막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와서 숨어있는 자기의 능력과 자질을 발견하고 개발하고 향상시켜서 입학할 때와는 전혀 다른 유능하고 자신 있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여 졸업하기를 바랍니다. 간호학과에서의 4년이 우리학생들의 인생을 remake 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의 '새로운 나의 발견과 완성'을 위하여 4년간을 열정적으로 자율적으로 그리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간호학과 교수님들은 모두 여러분을 한결같이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 엄영지 기자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동창회 발대식

2013년 2월 22일 졸업식이 끝난 후 우송대 보건의료 과학관 101호에서 간호학과 교수진, 졸업생, 재학생, 학부모가 모여 우송대 간호학과 동창회 발대식을 가졌다. 이현주 보건대학 학장과 오향순 간호학과장이 축사를 통해 동창회 결성을 축하했으며, 임원진 소개, 회칙 소개 등 졸업생 대표의 진행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졸업생들은 간호학과 발전을 위해 십시일반으로 기금을 모아 교수님께 전달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졸업생들이

후배들을 위해 우리 간호학과가 발전하는데 도움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지난 4년 동안 학생들을 위해 수고하신 교수님들께 감사를 전달하는 작은행사가 함께 진행되었다. 교수님과 함께 케익 커팅을 한 후, 졸업생 전원이 큰절을 올려 교수님, 졸업생을 비롯한 행사에 참석한 모두에게 감동적인 자리가 되었다.

>> 김시은 기자

동창회장 인사말



자랑스러운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반갑습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제 1대 동창회장 엄정미입니다.

존경하는 교수님들의 큰 관심과 격려, 그리고 동문님들의 열정적인 참여와 기대 속에서 우리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동창회가 이제 힘차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시작이라 부족하지만 항상 동문 여러분들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동창회장으로서 저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교의 발전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간호학과에서도 큰 힘이 되는 모범적인 동창회를 만들 수 있도록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들과 함께 비전과 전략을 갖고 착실하게 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동문 여러분!

바라건대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동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잃지 않고, 비빔 생활 속에서도 모교에서 어렵게 공부하는 후배들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도록 합시다. 또한, 어린 후배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듯이 선배로서, 책임 있는 사회인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만큼의 크고 작은 몫을 찾아 베푸는 배려와 연대의 공동체적 실천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간직하고 있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와 전통과 문화가 새로운 시대에도 변함없이 지켜지고 이어나갈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우송인으로서, 다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언제 어디서나 자랑스러운 동문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더 크고 무거운 짐을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학년 김호수, 손지하 ACE 대상 수상



2012년 11월 9일 우송대학교 솔브릿지 국제대학에서 학부교육 선진화 선도대학 지원사업(이하 ACE사업) 협의회가 주최한 '제 4 회 ACE 국내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은 "학부 교육 선진화 모델 구축 및 확산"이라는 주제로 95개 교육역량강화사업 참가 대학이 초청해 25개 ACE 대학의 우수한 프로그램들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학생 부문 26개팀 발표 중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김호수, 손지하가 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국제간호사 역량 강화 프로젝트 '날아올라 우송!'이라는 주제로 우송대 간호학과 입학 후 역량강화사업을 통해 서울아산병원에 최종 합격하기까지의 내용을 발표했으며 우송대학교의 교육역량강화사업의 효과를 직접 증명했다. 또한 우송대 간호학과 커리큘럼의 지력을 입증한 뜻 깊은 수상이었다.

>> 엄영지 기자



4학년 김보미, 자랑스러운 우송인상 수상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김보미가 '2012 자랑스러운 우송인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우송대학교 개교기념일에 수여되었는데 교내에서 우수한 학점뿐만 아니라 타의 귀감이 되는 성실한 태도로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학생에게 주어지는 상이며, 이현주 보건복지대학 학장의 추천을 거쳐 2012 자랑스러운 우송인으로 선발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수상은 간호학과 학생 모두가 자랑스러운 우송인이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계기가 되어 더욱 의미 있었다.

>> 엄영지 기자

제 8회 외국어 경시대회, 간호학과 대거 입상!



지난 11월 8일 우송대학교에서는 재학생들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고 학과별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 8회 외국어 경시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에서 간호학과 학생 17명이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을 해 학과를 빛내주었다. 이번 대회는 예선과 본선으로 나뉘어 진행되었고, 예선에는 교양영어과에서 준비한 토익 테스트 암기, 본선은 토익과 토익 스피킹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토익과 토익 스피킹 테스트를 동시에 시행하여 보다 정확한 영어 실력을 평가할 수 있었던 본 대회는 간호학과의 영어집중 커리큘럼의 효과성을 다시 한 번 명확히 입증했다.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1학년 김나운 학생은 "이번에 1등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서 영어 성적을 더욱 열심히 올리겠습니다" 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수상한 17명의 학생은 1월 26일부터 2월 6일에 걸쳐 12박 13일 동안 겨울 방학 해외 연수 특전으로 말레이시아에 다녀오게 된다.

>> 권수인 기자



- 간호학과 행사 -

간호학과, 축구대회에 참가하다!



지난 9월 5일, 우송대학교에서는 총장기 축구대회가 열렸다. 과 특성상 여학우가 많아 축구대회에 참가하지 못했던 간호학과에서도 올해에는 처음으로 대항전에 참가했다. 이번 축구대회에서 간호학과는 자산관리학과를 상대로 짜릿한 첫 승리는 거뒀지만 그 다음 상대인 외식산업경영학과에 아쉽게 패하며 축구대회를 마감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직접 필드에서 뛰고 힘차게 응원을 하며 힘든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고, 또한 늘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아닌 운동장에서 열심히 뛰는 남자 동기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간호학과와 축구에 대한 가능성뿐만 아니라 선후배간의 끈끈한 단합을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김예원 기자

신나는 우송대학교 축제!



9월 20일, 21일, 우송대학교에서는 이틀에 걸쳐 축제가 열렸다. 간호학과 역시 이번 축제에 참가하여 다른 과와 어울려 축제를 즐겼으며, 선후배가 다 같이 협력하여 치즈스틱과 고구마스틱을 판매했는데 치즈스틱이 완판 되는 좋은 성과를 보였다. 저녁에는 학과별 치어리딩 대회, 장기자랑이 열렸다. 간호학과는 아쉽게도 치어리딩 대회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다른 학과 학생들의 다양한 장기를 보고 즐겼다. 또한 달샤벳, DJ DOC 등 초청 가수들의 공연으로 함께 뛰고 노래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다시 학업에 정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날 모든 간호학과 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하고 나서 잔뜩 긴장한 마음을 풀고 공부할때는 하고 놀 때는 노는 맛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서로간의 결속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 박정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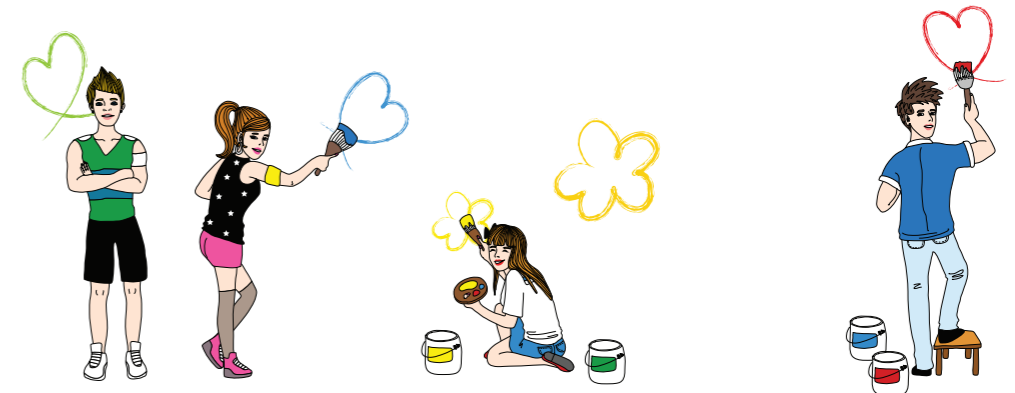
응답했다, 우송간호!



지난 10월 5일, 우송대 도서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응답하라 우송간호'로 학술제의 문을 열었다. 간호학과 1학년들의 외국어 연극과 2학년들의 간호 연극으로 구성된 1부와 10명 정도의 팀원들과 퀴즈를 푸는 형식의 2부로 진행되었다. 외국어 연극 팀에는 영어 2팀,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각각 1팀씩 총 5팀이 다양한 주제로 유창한 외국어와 연기 실력을 뽐내었다. 간호사 연극 팀에는 기본 의학 용어들을 사용하여 간호사의 자질 등의 주제로 현실감 있게 연기하였다. 1위는 개그콘서트의 '정여사'를 패러디한 1학년 중국어팀과 2학년 Vital팀이 차지하였다. 2부 골든벨에서는 현재 배우고 있는 필수과목

뿐만 아니라, 교양 과목, 넌센스 등 다양한 주제에서 문제가 출제되어 배운 내용들을 돌아볼 수 있는 유익하고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다. 팀끼리의 경쟁도 치열하여 끝까지 긴장감을 놓칠 수 없었다. 중간에는 수시 면접을 보고 온 학생들이 참관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되어 있어서 더욱 뜻 깊었던 학술제였다. 학술제를 주최한 학술국, 연극 준비를 열심히 한 연극팀, 퀴즈 대회에서 즐겁게 참가해 준 학생들이 모두 어울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만의 '응답'을 만들어냈다.

>> 이효진 기자



2학년간의 즐거운 만남



지난 11월 16일 학교 근처 닭갈비집에서 회식이 이루어졌다. 이 회식은 2학년 과대를 중심으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이벤트로서 2학년의 친목도모와 그동안 학업과 수많은 과제, 야자에 지친 학생들을 위해 준비되었다. 회식이 이루어지기 1주일 전에 2학년 모두 각자의 마니또를 뽑아 작은 미션들을 통하여 마니또에게 소소한 기쁨을 전해주었다. 미션은 마니또에게 웃으며 밝게 인사하기, 명언을 자필로 써서 전해주기, 자신의 신체부위를 찍어서 보내고 마니또를 몰래 촬영해서 사진보내기, 장점을 문자로 보내주기로 이루어졌다. 이 미션을 통해 2학년은 서로를

더 잘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고 하루를 좀 더 즐겁게 보내게 되는 원동력이 되었다. 회식 날에 자신의 마니또를 밝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또한 이 날 2학년 담당 교수님들께서 금일봉을 전달해주셔서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동안 2학년을 이끌어가느라 수고하신 담당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 2학년이 직접 엽서를 써서 전달하면서 훈훈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 김혜림 기자

우송대 간호학과 제 1회 사은회 개최



지난 1월 28일 6시 30분 슬파인 레스토랑에서 우송대 간호학과 제1회 사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는 4학년 학생들이 1기로써 졸업을 앞두고 교수님들께 4년 동안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자발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감사패 증정, 김수영, 문형주, 엄정미 학생의 축하 공연 등 다양한 행사로 꾸며졌다. 또한 참석 학생 전원이 자신의 4년간의 변화와 감사의 글을 개별적으로 낭독해 지난날들을 함께 회상했으며, 이현주 학장을 비롯한 교수님들의 훈훈한 덕담도 이어졌다. 다함께 '나는 문제없어'를 합창하며 새롭게 앞날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번 만찬을 통해 단순한 사제지간 그 이상의 끈끈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모두의 4년간의 노력과 성과를 축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앞으로 더욱 뻗어나갈 우송대 간호학과를 기대해본다.

>> 엄영지 기자



우송대 간호학과 국가고시 100% 합격!

우송대 간호학과 4학년들이 2013년 1월 25일 제 53회 간호사 국가고시에 응시했다. 이른 아침부터 후배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간식들을 챙겨 대전 둔원중학교로 응원을 나섰다. 학과 교수들도 직접 방문해 시험장에 들어가는 수험생들의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리고 지난 2월 14일 국가고시 발표 결과, 우송대 간호학과 1기 전원이 100% 합격하는 기쁨을 누렸다. 이미 전원 대학병원 취업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앞으로 진정한 간호사로서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지는데 기여하게 된다. 시작이 좋은 우송대 간호학과, 앞으로가 더더욱 기대된다.



>> 박소희 기자

신입생들을 위한 예비 대학

2013년 2월 27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신입생들을 위해 우송대학교 예비 대학 'Sol Spirit' 이 진행되었다. 27일은 모든 신입생들이 강당에서 모여 학교에서 주최한 설명회를 들은 후 간단한 토익 시험이 치러졌고, 오후에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간호학과 교수진이 학과 커리큘럼과 유학 프로그램, 장학 제도 등에 대해 간단히 설명회를 열어 학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녀의 진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28일 오전에는 본교 보건의료과학관 101호에서 간호학과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학술제 대상 팀의 간호를 주제로 한 연극, 호주 영양사 프로그램 발표, 4학년 취업 현황 발표 등을 진행했다. 또한 점심식사 후에는 직접 '강남스타일'의 가사를 개사하고 녹음한 '우송스타일'에 맞춰 운동장에서 보건복지대 신입생들이 모두 모여 플래시몹을 촬영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 후 조를 나누어 간호학과 선배들이 신입생들에게 심폐소생술과 Vital 측정에 대해 교육하는 시간을 가져, 선후배간 친밀감을 높이고 전공에 대해 미리 체험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 엄영지 기자



Year Book 발간!



우송대 간호학과 12학년 학생들이 Year Book을 발간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Year book은 12학년 새내기들의 첫 대학 생활의 추억을 남기기 위해 사진을 간단한 설명과 함께 담은 포토앨범이다. 1학년 지도 교수인 강창희 교수의 제안으로 시작하게 되었고, 1학년 과대표 전다혜의 주도 아래 모든학생들이 참여해 제작되었다. 이번 2012 version은 12학년들의 2012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어 외에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의 4개 국어로 번역이 되었다. 이는 12학년이 1년 간 배웠던 제 2외국어를 직접 활용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며 동기들 간의 소중한 추억을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애정이 듬뿍 담긴 값진 결과물이라 더욱 특별했다.

>> 엄영지 기자

간호학과 행사

* Advanced Practice in Psychiatric Nursing 김은희 박사



지난 10월 9일 본교 보건의료과학관 101호에서 김은희 박사를 초빙해 전 학년을 대상으로 미국 '간호실무전문가(Nurse practitioner)의 역할과 전망'에 대한 주제로 강의를 진행되었다. 김은희 박사는 미국의 정신간호 전문 간호사의 현황과 자격, 업무내용과 범위, 그리고 전망에 대하여 경험담을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또한 미국의 정신간호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강의했다. 이 강의를 통해 미국 간호사를 목표로 하고 있는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이 더욱 더 자신감을 얻었으며 꿈을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 엄영지 기자

* 저학년을 위한 민광동 강사 Career Design 특강



9월 28일, 학교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저학년을 위한 취업 특강이 열렸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에 전부터 수차례 특강을 온 바 있는 MAGIS 창업경영연구소 민광동 강사의 현장 위주, 행동 위주의 커리어 디자인 강의는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다. 특히 현재 트렌드에 맞게 SNS를 통한 커리어 디자인을 하는 방법을 직접 학생들에게 보여주어 적극적인 강의 참여와 열의가 느껴졌다. 이번 강의를 통해 자기 홍보, 자기소개서 쓰기 등 취업 시 요구되는 실질적인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 박소희 기자

* 김소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간호담당부원장



지난 11월 2일 간호학과 3학년들을 대상으로 세브란스병원 제3세미나실에서 '간호사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김소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간호담당 부원장의 특강이 진행되었다. 이 강의를 통해 현재 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의 간호사의 위치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으며 앞으로의 비전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현재 일선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선배 간호사'로부터의 생생한 현장 이야기여서 더 의미있는 강의였다.

>> 엄영지 기자

* Cam Staffing Services, Inc. Eugene Kim 대표이사



지난 11월 9일 Eugene Kim 강사를 초청하여 미국간호사 병원 취업 전략 특강이라는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이 강의에서 간호학과 학생들이 미국 간호사 취업에 대해 막연하게만 알고 있고 있던 것들을 직접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경험한 자세하고 실질적인 정보들과 미국 간호사에 대한 실황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또한 영어 학습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들을 수 있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이 강의를 통해 우송대 간호학과 목표인 미국 간호사의 꿈을 더욱 더 많은 학생들이 다시 한 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김혜림 기자

* 대한민국 최고의 야구선수, 박찬호 특강



10월 25일 가을 단풍으로 붉게 물든 우송대학교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준 사람이 왔다. 바로, 한화 이글스의 박찬호 선수다. 박찬호 선수는 '나는 마이너리그였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이 날 특강이 열린 도서관 강당은 박찬호 선수를 보기 위한 학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서기가 쉽지 않다'며 다소 수줍은 모습으로 입을 연 박찬호 선수는 자리에 모인 학생들에게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박찬호 선수는 '꿈이 희미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생각할 것', '내가 정말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하며 학생들에게 꿈과 미래에 대해서 조언해 의미 있는 시간을 장식했다.

>> 권수인 기자

* 서울아산병원 이정수 수간호사님



지난 10월 31일 정보과학관 101호에서 서울아산병원 이정수 수간호사님의 특강이 열렸다. 이번 강의는 우송대 간호학과 3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통증관리와 투약간호에 있어서 임상현장의 최신경향과 간호를 배우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소아 청소년 간호의 일반적 원칙, 투약간호, 통증 관리 등 아동간호학 교과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서울 아산 병원 청소년 병동 임상현장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까지 들을 수 있어 매우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다.

>> 김예원 기자

*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



12월 18일 정동극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 지원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하여 강연하였다. 이번 강의에서 정동극 지원장은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체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과 역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의 간호사의 수와 역할에 대해 설명했다. 이 강의를 통해 학생들은 건강보험제도와 심평원에 대해 심층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며, 간호사로서 병원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진로에 대해 폭넓게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박정란 기자

* 교육부 보건교육과정심의회 부위원장 우옥영 박사



지난 1월 10일 1학년들을 대상으로 교육부 보건교육과정심의회 부위원장, 한국 교육연구소 이사, 보건교육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우옥영 박사를 초빙해 '학교보건교육의 이해와 전망'을 주제로 강의가 진행되었다. 우옥영 박사는 보건교육포럼의 비전과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특히 보건교육 관련법 제정 과정에서의 노력들을 보여주었다. 또한, 현재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보건'의 교과 내용과 사진, 영상 자료들을 보여주어 강의에 흥미를 더하였다. 이 내용들은 겨울학기 중 간호학과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보건교육학'과 연관되어 보건교육의 중요성과 '보건교사'로의 진로 방향을 상기시켜준 유익한 특강이었다.

>> 이효진 기자

graduation

졸업식 이모저모



졸업을 축하합니다!

안녕하세요. 간호학과 졸업생 김재영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2009년 2월, 우송대학교로부터 입학 전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해 달라는 초청장을 받았습니다.

새로 생기는 학과이기에 미심쩍어 하는 저러들에게 대학에서는 부총장님까지 나오셔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해 주셨고, 4년 후 간호학과의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깊은 신뢰와 희망을 느낄 수 있었기에 저희는 소신껏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훌륭하신 교수님들의 열정적인 지도를 받으며 4년의 시간이 흘러 우리는 오늘 영광스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에게 지난 4년간의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전원 기숙사의 엄격한 규율 속에서 생활하며 고등학생들처럼 늦은 밤까지 자습을 하며 어렵게 버려낸 시간들이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지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어렵게 이겨낸 시간들이 있었기에, 간호학과의 '전원 졸업', '전원 취업'이라는 오늘의 이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졸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제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딛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인생의 선배로서 한 가지 당부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극복해 낸 지난 4년간의 시간들을 생각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을 지탱해 줄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졸업생 여러분들이, 나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4년이라는 긴 시간을 함께 어우러져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힘을 모아 그 많은 어려움들을 지혜롭게 극복해 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 끈끈한 우정을 절대로 잊지 말고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인생의 동료로서 끝까지 간직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졸업생 여러분, 행소!(행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졸업생 선배들을 보내며...



3학년 송 주 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학생 대표 송주은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 선배들이 졸업하는 이 순간이 믿기지 않습니다.

처음 캠퍼스에 발을 내딛고 기대에 부푼 채 선배들과 첫 대면을 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선배들을 더 큰 세상으로 보내야만 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기대에 부풀어 참석했던 예비대학 때 선배들이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남아서 신입생들의 궁금증 풀어주던 것, 엠티 때 서로를 부둥켜안고 더 잘해보자며

엉엉 울었던 것, 야자하고 돌아와 주린 배를 달래기 위해 함께 치킨을 시켜먹었던 것, 가끔은 선배들이 후배들에게 눈물을 쫓 빼는 따끔한 충고를 했던 것까지도 지금은 다 잊지 못할 아름다운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때로는 살인적인 학과 스케줄로 너무 힘들어 울기도 하고, 교수님에게 항의하는 해프닝까지도 일어났지만, 그래도 그런 시간들이 흐르고 흘러 지금 이 순간 모두가 아름다운 간호사가 되어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격스럽습니다. 대학병원 100% 합격과, 국가고시 100% 합격이라는 세간이 주목할 만한 결과물을 내기까지 교수님들과 선배들이 그간 고생한 모습들을 가까이서 봐왔던 저러로서는 100%라는 숫자가 얼마나 멋있으면서도 가슴이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언제나 최고학년으로써 우리 후배들의 위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선배들이 떠난다고 생각하니 떨컸던 걸도 나지만 한편으로 사회에서 멋진 간호사가 될 선배들을 생각하니 든든하기도 합니다.

기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언제나 학과를 위해 여러모로 최선을 다하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학과의 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선배들의 그 모습들을 저러 후배들도 꼭 배우고 이어나가 더욱더 발전해나가는 우송대 간호학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졸업생이라는 것엔 참 많은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것도 보장되지 않았던 때에 모두의 걱정 속에서도 소신을 가지고 용기 있게 입학하여, 서로를 응원하며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걸고, 또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만의 영역을 개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선배들의 졸업식은 더욱더 빛나고 아름다운 졸업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선배들이 이제 곧 병원이라는 현장에서 직접 환자 간호를 한다고 생각하니 제가 오�히려 더 가슴이 뻐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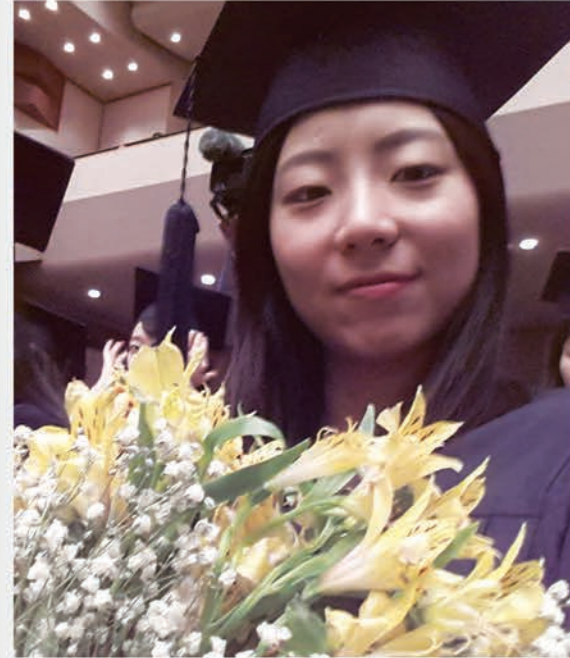
환자 간호를 통해 보람을 느끼는 순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때로 동료 간의 마찰도 있을 수 있고, 때로 어떻게 환자를 대해야 할지, 어떤 간호를 제공해야 할지 몰라 머릿속이 아양하게 변해버릴 때도 있겠지만 우리 우송대 간호학과에서 자신을 이기기 위해 독하게 노력해왔던 것처럼 선배들이 병원에서 또한 끊임없이 발전하는 멋진 간호사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4학년 선배들!

4년 동안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배들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를 떠나며

- 4학년 엄정미

안녕하십니까. 이번 졸업생 대표인 엄정미입니다.

우리가 자리에 설수 있던 것은 교수님들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막상 학위수여식 자리에 서지던 4년간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역시 언제나 마지막이라는 순간은 아쉬움과 함께 오는 것 같습니다. 분명 그렇게 기다리던 졸업이고, 어서 더 커서 대학교 졸업해서 어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 왔었는데, 막상 이 순간이 다가오니 아쉬워지는 건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기쁘면서도 서운한, 상당히 복잡하고 미묘한 기분입니다. 시간이 지나버렸는지 모르고 대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끝마칠 수 있던 것은 아마도 우송대 이사장님, 이현주 학장님, 오향순 학과장님, 간호학과 교수님, 부모님 그리고 동기 및 후배들 덕분이겠지요. 교수님의 진심어린 지도 아래에서 올바른 생활을 배우고, 동기들과 함께 언제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 사랑 아래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훌륭히 졸업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떠나고 나면 남게 될 우리 우송대 간호학과 후배 여러분, 저도 얼마 전까지 후배여러분과 함께 생활했는데, 이제는 제가 후배 여러분에게 답사를 하는 자리에서 있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 저희를 축하하기 위해 와줘서 정말 고맙고, 이렇게 가슴 따뜻하고 착한 후배들이 저희 학교에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후배 여러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부디 남은 시간 동안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며 마침내 이 순간이 여러분 앞에 왔을 때 참된 기쁨을 맞이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4년 동안 우송대 간호학과에서 배운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컸던 것이 되지 않도록 간호사가 되어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미국간호사 자격증 취득 등의 학문적으로도 노력하고, 마음이 따뜻한 훌륭한 사람이 되어 언젠가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다시 찾아와 담당하고 멋진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런 날이 오도록 노력할 테니 이 자리에 와주신 교수님들과 부모님 그리고 후배들 모두 응원해주세요요.

오늘 이 졸업이 진정한 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교수님 및 후배 여러분과 연락을 통해 서로의 안부를 묻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이가 되어 우송대 간호학과의 무궁한 발전의 밑바탕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어질 인연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열심히 살아하겠습니다.

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파이팅!

호주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다!



우송대학교 보건복지대학에서 주관하는 호주 해외 동계연수 요양보호사 자격증 프로그램이 올해도 진행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가 2회째이며 호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영어권 국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서류 심사와 영어 인터뷰를 거쳐 간호학과에서는 총 15명의 학생이 선발되었으며 학생들은 1월 21일부터 2월 7일까지 약 2주간 국내에서 호주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호주 애들레이드(Adelaide)의 요양보호소에 직접 방문해 2주 동안 노인 분들을 대상으로 활동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인들과 함께 실전 경험을 쌓고, 선진 의료서비스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그동안 갈고 닦은 영어실력을 이용해 국제간호사로써 한 걸음 더 가까워진 모습을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선후배간의 유대감을 더욱 단단히 한, 힘들었지만 멋진 방향을 보냈다.

>> 박효진, 김시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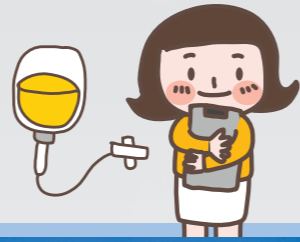
동계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해외 연수단 파견 간호학과 학생 다수 선발



아시아 최고의 특성화 대학을 목표로 하는 우송대학교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많은 학생 연수단을 해외로 파견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와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동계 해외 연수단 파견은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등지의 아시아 지역이 파견되어 각 나라의 경제 시스템과 사업 아이템을 구상하여 발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간호학과 학생들은 간호학이라는 전문성이 짙은 전공임에도 학기 중에는 학과 공부에 매진하며 뛰어난 영어실력을 바탕으로 연수단 파견 전에 실시되었던 연수단 선발 면접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다수의 학생이 해외 연수단으로 선발되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국고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며 학생들은 개인 비용 없이 학교와 국가의 지원으로 해당기간 동안 인도 1명, 인도네시아 2명, 중국 14명이 파견된다. 이번 연수단으로 파견되는 간호학과 학생들이 다녀와서 낼 성과에 큰 기대가 된다.

>> 박소희 기자

3학년 겨울 실습



학기가 끝나고 3학년의 실습이 시작되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는 강남세브란스, 신촌세브란스,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국내 유수의 대형 병원들에 실습을 나가며 청심국제병원, 국립공주정신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간호대학 중 최초로 우송대 간호학과에서 우수한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용산 121 미군병원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는 우송대 간호학과와 목표인 미국간호사 자격증 취득과 관련해 현지

시스템을 몸소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학기 중 Sol-hospital을 비롯한 최신 실습 장비들로 열심히 한 덕분에 훨씬 수월하게 실습에 임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실습을 바탕으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2기도 좋은 결과가 기대된다.

>> 엄영지 기자

SSAT 강의, 삼성 취업을 위한 한 발자국



2012학년도 2학기부터 SSAT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아 2학년과 3학년에게 SSAT 강의를 시작하였다. SSAT는 삼성직무검사로 폭넓은 지식으로 주어진 상황을 유연하게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삼성만의 시스템이다. 이 강의를 듣기 위해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지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선발해 진행되었으며, 강의는 Educe의 강사 분들을 초빙해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 이루어졌다. 수요일에는 언어영역, 수리영역, 추리영역, 일반상식영역을 번갈아가며 강의하고, 금요일에는 수리 I에 대한 강의를 진행되었다. 이 강의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삼성에 도전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 김혜림 기자

동.아.리

우송대학교 절주동아리 '주인'



2012년 11월 2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개최된 제5회 전국대학 절주동아리 종합실적 평가대회에서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절주동아리 '주인' 이 대한보건협회에서 수여하는 사업 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절주동아리 '주인' 은 회장 3학년 송주은, 부회장 3학년 권선희를 비롯해 사무, 학술, 기획, 편집, 홍보부로 구성되며 지난 2011년 간호학과에서 창설된 이후로 꾸준히 활동해 왔다. 매달 'Health for you'를 개최하여 교내

학생, 직원들을 대상으로 무료 혈압, 혈당 체크 및 절주 교육을 실시했으며, 축제 때 무알콜 카테일 시음회, 음주 고글 체험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절주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앞장섰다. 수상 이후 상금으로 다함께 한해 활동을 마무리하는 뒤풀이를 했으며 이 자리에는 이현주 학장도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다. 절주동아리 '주인'의 앞으로의 활동을 더욱 기대해본다.

>> 엄영지 기자

Carl's Guitar Club



우송대 간호학과 학생들은 학기 중에 영어공부와 기타 레슨을 함께 할 수 있는 'Guitar Club' 활동을 Carl교수의 주관으로 실시하고 있다. 매주 월요일 8시부터 9시까지 활동하는 이 클럽은, Carl 교수가 팝송 곡을 선정해 오고

학생들에게 기타코드를 설명해주면 학생들은 코드를 배우고 배운 코드를 연주하는식으로 진행된다. 이 모든 수업은 오직 영어로 진행된다. 교수는 영어로 코드를 설명하고 학생들은 모르는 부분을 영어로 질문한다. 연주하는 곡은 대부분 Beatles, Elvis Presley의 곡으로 곡의 가사 역시 영어이다. 학생들은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며 기타와 영어를 동시에 배울 수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다함께 모여 교우관계도 돈독해지고, 스트레스 해소와 영어 실력 향상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클럽이다.

>> 박정란 기자

독서 클럽 '다독' 창단

지난 겨울학기 중 김경아 교수님의 지도하에 간호학과에 독서동아리 '다독'이 창단되었다. 회원은 총 17명으로 모두 2학년이며, 회장 '김진아', 부회장 '배민경'이 맡았다. '다독'은 바쁜 학과공부 중에도 꾸준히 독서하는 것을 목적으로 창단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총 3번의 모임이 있었으며 회의는 3그룹으로 나누어 각자 정해진 기간까지 책을 읽고 모여 책의 내용을 토론하기도 하고 한명씩 돌아가며 그 날의 토론을 진행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단순히 책을 읽고 내용을 공유하는데 그치지 않고, 연관되는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토의도 함께 진행했다. 1월 17일 '다독' 회원들이 모여 '포괄수가제'에 대하여 찬반 토의를 하기도 하고, 열심히 해온 회원을 격려하기 위해 5명을 선발해 문화상품권을 전달하기도 했다. 방학이 끝나고 개강하는 첫째 주에는 방학동안 읽은 책을 주제로 토론대회를 개최할 것으로 재학생 또는 신입생 중 원하는 자는 토론대회를 참관 할 수 있고 그 중 원하는 사람은 입부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 박효진 기자





- 3학년 이미희

I joined a program which is called Certificate III in Aged Care Work. I just returned to Korea yesterday from that program. I spent two very special weeks in Australia. I still cannot calm down, even now. It was a very special time for me. I will never forget the experiences I had there. This program changed me and also my future. Actually, I took my sweet time applying to this program at first, because I did know that this would be a very great program. I thought I would be nervous because this would be the first time to go abroad in my life. When I heard that I was on the list, I jumped for joy and surprise. There were many applicants who wanted to join this program, but were not selected. I learned a lot from this program. I learned how to do manual handling, what aged care is, and learned about another country's culture. Manual handling is the safety of care givers and care takers. It was necessary to be safe for not only the residents, but also the care givers. The trainer who taught m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how to protect our (the caregiver's) bodies.

I was surprised to learn that I can protect my own body with simple manual handling while providing care. I think it will be very useful and handy when I become a nurse in the future.

Also, the trainer said he wants to conduct a campaign, 'PAIN FREE KOREA'. I totally agree with his plan and I will gladly join this campaign. The aged care in the nursing home was a wonderful experience for me. I learned and practiced a lot of basic nursing. Care givers who I met at the nursing home had beautiful minds.

I could tell that they really love and take care of the residents. Also, the residents do feel the love that they receive from the caregivers and they love them in return. It seems caregivers enjoy their job. In addition, all the residents have marvelous smiles and beautiful minds. From what I saw and felt from them, I cast away the prejudices that I used to have about older people. I respected and loved the residents who I gave care to. I will miss them. Finally, thanks to this program, my point of view about the world changed. Also, I want to thank Woosong University, since this was the last chance to go abroad with school support. Again, I want give appreciation to my professors, trainers, and Woosong University. I want to say one last thing to my friends and juniors in the Nursing Department: "Grab your chance! Don't hesitate! You can make it! Although new experiences are always hard at the beginning, they will give you a new point of view. Broadening and extending your perspective will have a powerful influence on your life. Woosong gives you many opportunities. Grab them and meet the challenges!"

Malaysia



- 2학년 남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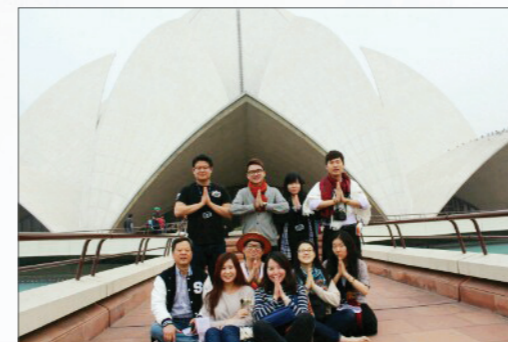
저를 포함한 간호학과 외국어 경시대회 입상자 10명은 2013년 1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쿠알라룸푸르에 위치한 University of Malaya의 교환학생으로 말레이시아에 머물렀습니다. 13일이라는 짧은 체류기간 때문에 아침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쿠알라룸푸르를 부지런히 돌아다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의 상징이라는 트윈타워부터 열대 과일과 해산물 바베큐가 넘쳐나는 야시장까지 말레이시아라는 나라 그대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이니 만큼 영어에 그대로 노출 되어 실생활에서 영어를 쓰고 영어를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말하기에 자신이 없었던 저는 말레이시아 도착 하루 이틀까지는 말을 거의 못 했지만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하는 도중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이 끝난 현재에도 현지 친구들과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영어 실력 향상 외에도 이번 13일 간 1학년, 2학년 들이 함께 다니며 선후배간 돈독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Window to Malaysia 프로그램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몸소 체험하며 동시에

영어능력을 향상시켜 글로벌 인재를 양성시키자는 우송대학교의 비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과 다른 친구들에게 이번 프로그램을 적극 추천하고 싶고 이번에 다녀온 저희 10명은 학업뿐만 아니라 더욱 값진 추억과 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우송대학교에 감사드립니다.



India

- 2학년 김지은



1월 26일부터 2월 3일 9일 동안 우송대학교와 솔브릿지의 13명의 학생이 함께한 Asian Market Research Program에 참여하여 인도에 다녀왔다. 인도에 가기 전에 인도는 교통 문제 때문에 연간 12조원을 손실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보통 한국의 도로 상황을 생각한 나는 '도대체 어떤 도로이기에 손실이 이렇게 클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 하지만 인도에 도착하자마자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다. 인도의 도로에서는 내가 상상하던 것 이상이 있었다. 승용차와 택시 같은 운송수단은 물론이고, 개, 돼지, 말, 심지어는 유유히 걸어가는 코끼리까지도 볼 수 있었다. 또한 교통질서 의식도 약해서 운전자들의 차선 무시는 물론이고 서로 먼저 가려고 경적을 울리는 차들이 가득했다. 이러한 혼잡한 교통 상황 때문에 차들은 시속 30km를 유지하며 달린다. 델리에서 타지마할이 있는 아그라까지 200km를 이동하는 동안 7시간이 걸렸다. 이것만 봐도 인도의 교통 상황이 어떤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 위에 있는 동안 끊이지 않는 경적소리 때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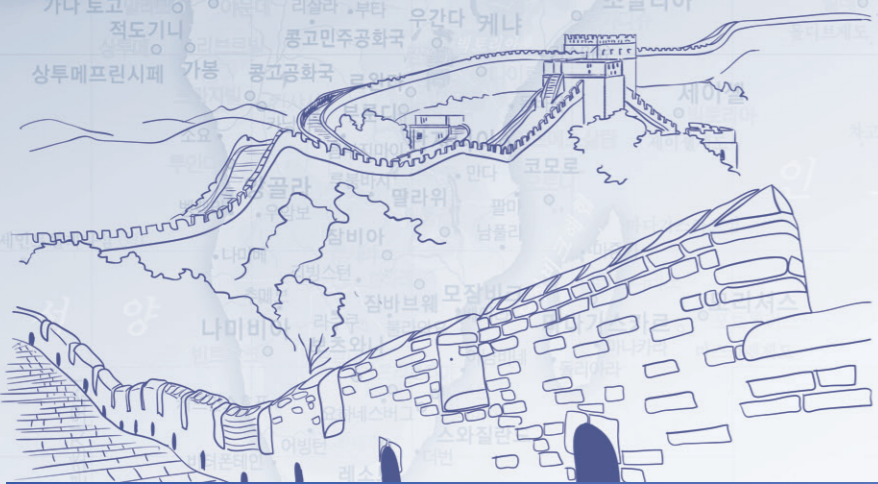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세계 17%의 인구가 있는 광활한 대륙에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잘 된다면 정말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는 인도의 성장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Indonesia

- 2학년 박 소 희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을 거쳐 해외(아시아 지역) 시장 조사단으로 선발되었다는 전화를 받고 정말 기뻐했습니다. 약 한달 가량의 철저한 준비 끝에 2월 1일부터 9일까지 8박 9일 동안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를 비롯한 반둥, 족자카르타를 동기 박혜리와 함께 다녀왔습니다. 원래 산학협력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있기로 소문난 우리 학교이지만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방문한 모든 기업과 학교에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아줬고 저희를 위해 프리젠테이션을 경영진 분들께서 해주시고 질의응답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직접 피부로 해외 현지 시장에 대한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장 조사 팀도 우송대 학생들과 솔브릿지 대학 학생들, 전공별로 다양한 구성으로 짜여 있어 각자 다른 여러 관점에서 시장 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 전반적인 지식의 범위가 확장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간호학은 전문성이 짙어 시장 조사 분야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강한 전문성에 해외 시장 조사를 융합하여 한국을 넘어 해외 시장에 의료의 한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더 넓은 세상에서 직접 많은 것을 체험해보고 공부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학교 측과 매번 큰 도움 주시는 사무실 선생님들,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공지해 주시고 격려해주신 교수님들께 무한한 감사드립니다.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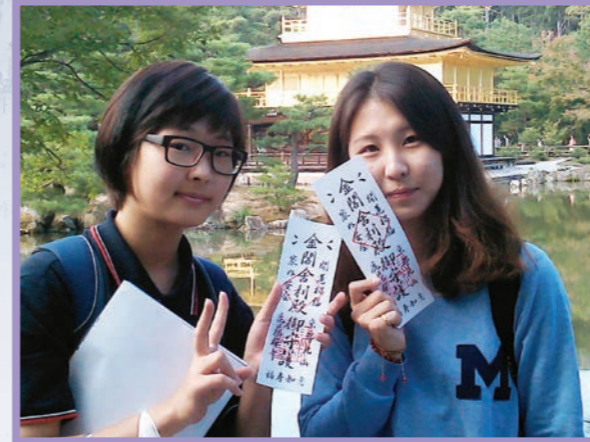
- 2학년 김 연 희



2013년 1월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경외국어대학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대학 입학 후 제 2외국어로 배운 중국어로 현지인들과 실제로 대화할 수 있을까? 라는 약간의 두려움과 타국으로 가는 설렘을 안고 출발했다. 중국에 도착한 첫 날, 북경 최고의 오리고기 집에서 성대한 만찬을 대접받았다. 둘째 날에는 텐진에 있는 와인공장을 견학 및 중국서커스단 구경을 했고, 셋째 날에는 한중 관광에 대한 강의를 들은 후 북경외대 캠퍼스투어, 천안문과 자금성도 보았다. 또한 평양 옥류관에서 기름진 중국 음식에 지친 속을 달래고, 공연도 관람했다. 넷째 날에는 한국기업의 중국진출에 대한 강의를 듣고, 서태후의 여름 별장이라는 이화원 방문, 모조품의 천국인 실크시장에서의 쇼핑, 마지막으로 중국에 진출한 CJ 영화관에서 007이라는 영화를 봤다. 영어로 듣고 중국어로 보는 상황이 동시에 두 가지 언어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매우 신선했다. 마지막 날에는 중국 해외연수 일정의 마지막 강의를 듣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생활을 하면서 이따금씩 중국인들과 대화했을 때 열심히 공부한 것이 헛되지 않은 것 같아 뿌듯했다. 비록 5일간의 짧은 연수였지만 알찬 일정과 소중한 강의들을 들을 수 있었던, 그리고 중국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된 뜻 깊은 연수였다.

일본교환학생 프로그램 후기

오카야마 현립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2012년 9월 20일부터 2013년 2월 12일 약 6개월 간 우송대 간호학과 2학년 김지연, 이서진 두 학생이 일본 오카야마 현립대학에서 교환학생 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우송대학교와 오카야마 현립대학은 학교 간 자매 결연을 맺어 우송대에서 2년을 다닌 후 일본에서 2년을 마치는 유학 연수만 가능했으나 지난 해 처음으로 학과 간 한 학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체결했다. 따라서 일본어 우수자인 김지연, 이서진 학생이 선발되어 두 대학 간호학과 교류에 첫 발을 내딛었다. 두 학생은 일본어로 진행되는 강의와 시험을 모두 성실히 소화해냈으며, 현지 학생들과도 스스럼없이 어울렸다는 후문이다. 일본에서의 학점 이수가 인정되어 이들은 돌아와 동기들과 다시 함께 하게 된다. 성공적이었던 첫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앞으로 두 대학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 엄영지 기자



2학년 이 서 진

2012년 9월 20일부터 2013년 2월 12일까지 일본 오카야마 현립대학 간호학과에 한 학기 동안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각 대학 간호학과 교류의 교류를 통해 이루어진 첫 교환학생인 만큼 많은 책임감과 기대를 안고 떠난 유학생활이었습니다. 일본 간호학과 교류의 경우 1학년 때부터 병원 실습을 나가는데 오카야마 현립대학 교수님들의 많은 도움으로 오카야마 대학병원에 이들 동안 견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본 학생들과 함께 일본의 병원 시스템을 직접 눈으로 보고 환자 케어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학과 수업의 경우 일본어로 전공 수업을 들으며 일본의 현 간호 상황을 생생히 배울 수 있었습니다. 글로벌 간호를 목표로 하는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류의 비전에 맞게 교환학생을 통하여 직접 그 나라에 살며 느끼고 배운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신 우송대학교 간호학과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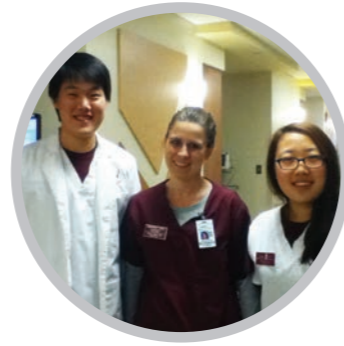


2학년 김 지 연

처음 일본 오카야마에 도착해서 1개월간은 전공 수업을 듣고 레포트를 써 가는데 정신이 없었다. 일본어라고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말밖에 할 줄 몰랐던 내가 갑자기 전공 수업을 모두 일본어로 듣게 되니, 유학생활 초에는 모르는 의약품어도 너무 많았고 일본어로 된 전공 책을 읽기에는 내 일본어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래서 약 1개월간은 수업이 끝난 후, 모르는 단어를 전부 공책에 적어서 사전으로 찾아가며 공부를 했다. 모르는 의약품어가 너무 많아서 한 장을 넘기는데 하루 종일이 걸린 날도 있었다. 그렇게 모르는 단어를 반복해서 찾고, 책을 베껴 쓰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 3~4개월쯤 지난 후에는 나름 일본 의약품어에도 익숙해져서 모르는 단어는 소리나 한자를 보고 유추하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레포트는 우송대 간호학과보다 훨씬 많았고, 내가 일본어 문법에 취약해서 레포트를 쓰는 것이 가장 힘들었지만 많은량의 레포트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시간이 지난 후에는 일본어로 레포트를 쓰는데 있어서 부담감이 좀 줄어들었다. 실습으로는 체험을 직접 해볼 수 있었고, 체험으로 얻은 자신의 피로 세균배양을 하는 실습의 기회도 주어졌다. 또한, 오카야마 대학병원에서 2일간 병원실습을 하는 엄청난 행운이 주어져서 일본인 환자의 케어도 실제로 해 볼 수 있었다. 교과서가 아닌 실제 현장에서 일본의 간호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일본의 의료체계에 몇 상황, 간호에 대해 배우는 뜻 깊은 한 학기였다고 생각한다.

Fairmont University 복수학위 과정 학생 후기

- Fairmont University 에서 전해온 소식



2012년 여름, Fairmont State University (FSU) 에서 첫 학기를 시작하고자 Fairmont 에 설레고 두려운 마음으로 도착하였는데 어느덧 이곳에서 두 번째 학기의 중반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저는 간호학과 1기로 우송대학교에 입학하였고, 2학년을 마친 후 1년 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오면서 우송대 간호학과에서 배운 영어를 기반으로 영어실력을 월등히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복학한 후 3학년 1학기에 심도 있는 전공과목을 배웠고, 틈틈이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연락하고, 스스로 영어실력을 좀 더 향상시키고자 항상 노력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우연히 '1+1 복수학위 제도' 에 관한 공고문을 보게 되었고, 자격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복수학위 제도의 1기 학생으로 안정섭 학생과 함께 선발되었고, 간호학과 교수님들의 지지를 받으며 이렇게 감사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FSU 간호학과에서 느낀 가장 큰 차이점은 절대평가로 성적을 낸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 절대평가 시스템은 다른 학과들 보다 더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 C이하 (75점 이하) 일 경우 간호학과에서 탈락되어 1년을 기다려 다시 재도전해야 합니다. 이 재도전 기회도 2회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여러 번에 걸쳐 큰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학생들 모두 75이상의 성적을 받아 통과하기 위해, 학생들 사이에서 매번 긴장의 연속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시험은 미국의 국가고시 NCLEX-RN 과 같은 형태로 컴퓨터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절대평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 경쟁을 하는 상대평가가 아니라는 사실에 참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그룹 스터디를 하는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고, 서로서도 돕는 분위이기 때문에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높아 스스로의 실력을 끊임없이 도전 받았고, 한 학기에 큰 시험이 6번에서 7번 정도 치러지기 때문에 거의 매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번 큰 비중의 시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해야 좋은 성과를 얻는 것도 큰 특징이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했을 때 많은 학생들이 탈락하고, 1년을 기다린 새로운 학생들이 보면서 더욱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 속에서 낯설고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꾸준히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었고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실습은 어렵고 긴장되는 과정인 동시에 정말 행복하고 감사한 부분입니다. 지난 학기에는 기본간호학 실습을, 이번 학기에는 성인 간호1 과 모성간호 실습을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환자를 배정 받고 간호사와 동등하게 간호처치를 하게 됩니다. 실습 담당 교수님께서 실습 내내 학생들과 함께하시고,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더 배울 부분에 대해 pre & post conference 을 통해서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외국인으로서,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 또한 어려운 부분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담당하게 된 병실에 들어가기 전 너무나 떨렸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아직도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에도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고, 환자들 또한 간호학생을 알아봐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전문가로 인정해주시기 때문에 외국인 간호학생으로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소위 말하는 진상환자를 만난 적은 다행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복수학위 제도에 관심이 있어 FSU 간호학과에서 공부하고자 생각하시는 후배들이 있다면, 첫 번째로 영어 듣기능력 향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호학과 전공 강의를 따라가야 함은 물론이고, 교수님과 학생들과의 대화, 또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서 듣기는 선행되어야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송 대 간호학과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영어수업에 충실하고, 스스로 영어실력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간호학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기를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 와서 새로운 제도안에서 공부한다고 그동안 잘하지 못했던 것이 기적처럼 향상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도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고, 원서로 철저히 공부한다면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경쟁력 있는 학생으로 빛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09학번 이승하

우리들의 이야기

Q. 1회 졸업생으로써 졸업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졸업' 이라는 인생의 큰 행사에 만감이 교차합니다. 4년 동안 울고 웃었던 수많은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그 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 모두들 성숙해진 모습으로, 각자의 꿈을 가지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곳에서 자랑스러운 우송인이 되겠다는 생각에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더 큼니다. 지금 이 마음을 오랫동안 기억하여 일하며 적어도 학교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기가 시작한 이 길을 후배님들께서 더 길게, 더 넓게 하는 동안 더 많은 희노애락으로 갈고 닦아 반듯하고 예쁜 모양을 가질 수 있도록 언제나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우송대 간호학과 파이팅!

- 4학년 과대표 최윤정

Q. 한 학기를 마치는 소감이 어떠신가요?

A. 3학년 학생들에게 이번 학기는 보고 또 봐도 어렵지만 한 전공과목들과 정해진 토익점수, 그리고 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취업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등으로 정말 힘들었던 학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 즐기고 있는 친구를 깨워가며 파이팅을 외치던 지난 학기는 정말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처음 과 대표로 당선되었을 때만 해도 어떻게 공지를 전하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막막하기만 했는데, 여러 동기들의 도움 덕분에 탈 없이 무사히 잘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모두들 정말 고맙습니다. 우송대학교 간호학과가 문을 연지도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교수님들의 노고와 학생들의 열정이 없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우리 학과의 명성은 있을 수 없을 것 입니다. 힘들다고 투덜대면서도 열심히 따라 와준 여러분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3학년 동기 여러분~~ 그동안 열심히 달려온 것들, 올 한 해 동안 잘 마무리해서 모두가 끝까지 웃을 수 있는 201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파이팅입니다!!!^^

- 3학년 과대표 송주은

A. 안녕하세요. 이번 학기 2학년 과대표 이진실입니다. 이번 학기는 우리 학과에 있어서 중요한 학기였습니다.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학기이기도 3기인 2학년들도 선배들의 취업과 졸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4학년 전원 대학병원 취업이라는 성과를 이루어 냈고, 이것은 저희 2학년들에게 새로운 동기부여를 하는 계기가 되어 2학년들의 학습 분위기가 더욱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중간고사이후 많은 공부 양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워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마니토와 2학년들만의 첫 회식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이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서로간의 친밀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한 학기동안 동기들의 전체 분위기를 파악하고, 그 안에서 보이는 필요들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과대표로서 동기들을 위해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상승된 분위기를 계속 이어서 본격적인 전공 수업을 듣고 첫 실습의 두려움이 있는 삼학년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11학년 동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2학년 과대표 이진실

A. 학기 마치면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1학년을 무사히 마치게 되어 기쁜 마음이 큼니다. 이제 기본간호학부터 진짜 전공이 시작 된다고 생각하니 불안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네요. 선배님들과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다보니 선배님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는지를 봐 와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천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졸업하시는 09학번 선배님들 보면서 12학번도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 내서 자랑스럽게 졸업하고 싶습니다!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리고, 우송대 간호학과 파이팅!

- 1학년 과대표 전다혜



제 4호 2012년 2학기



THE WOOSONG UNIVERSITY
NURSING SCIENCE
DEPARTMENT PRESS